

교수일반분과/문학/02/

애도의 윤리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론

조경덕 (평택대 국문과 교수, 문학분과)

1. 들어가며

이 글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서술자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벌레 이야기」는 『외국문학』 85년 6월호에 발표되었다. 발표 직후 이청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평자들이 「벌레 이야기」를 주목했다.¹⁾ 그러다 2005년 이창동 감독이 이 작품을 각색하여 ‘밀양’이란 제목으로 영화화하고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아 「벌레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학계에서는 원작 「벌레이야기」와 영화 『밀양』 간 거리를 조명하는 연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더불어 영화와 소설에서 공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용서’와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²⁾

「벌레 이야기」는 중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벌레 이야기」에는 알람이 어머니, ‘나’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와 이를 이야기하는 ‘나’의 상황이라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많은 경우, ‘나’가 이야기하는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내용의 ‘액자’에 해당하는, ‘나’가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 ‘나’의 심정, 아내의 삶에서 ‘나’의 역할 등을 살펴보면 「벌레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³⁾

몇몇 연구자들은 「벌레 이야기」의 알람이의 아버지이자 화자인 ‘나’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

1) 초기 논의로는 삼인행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청준 론』(1991)에 수록된 김현의 「떠남과 되돌아옴」, 현길언의 「구원의 실현을 위한 사랑과 용서」 등이 있다. 학술 논문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에 쓰인 글은 이대규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벌레 이야기」를 ‘기독교적 상상력’, ‘휴머니즘적 상상력’, ‘사회·역사적 상상력’ 등으로 나누어 읽었다. 이 같은 구분은 후대 연구에도 참조가 되었다. 이대규, 「이청준 소설 「벌레 이야기」의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 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년 12월.

2) 나소정은 「벌레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 측면에서 두 가지 갈래로 정리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 소재와 관련하여 인물들의 행위에 기반한 주제론적 접근을 시도한 논의들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색한 논의들이다. 나소정, 「다매체 시대의 문학비평(1):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주제 해석에 관하여-이청준 「벌레 이야기」와 이창동 「밀양」, 『한국문예창작』 제8권 제2호(통권 16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년 8월, 254면. 한편 한래회는 이러한 주제 연구와 더불어 「벌레 이야기」와 『밀양』 간 매체 특성을 비교한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사를 소상하게 정리하였다. 한래회, 「소설, 「벌레이야기」와 영화 「밀양」의 서사전략 비교-‘애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4. 참조.

3) “그 작가와 독자가 함께 해가는 소설 과정과 결론부에 이르서의 독자 몫의 해결방안, 그리고 그를 위한 동등하고 복합적인 반성적 시선들로서의 역할의 필요성…… 거기에는 화자 한 사람만의 관점이나 독점적 전횡이나 군림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세상과 삶의 양식이 더없이 복잡해지고, 지식과 기능이 무한정 세분(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작가나 작중 화자가 그 소설 속에 감춰진 진실의 열쇠를 혼자서 거머쥐고 그 전지의 천재성을 발휘할 처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작가 이청준, 엮은이 이위발, 「문학의 토양을 이룬 반성의 정신」, 『이청준 논』, 삼인행, 1991, 161면. 이와 같은 작가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 이청준 소설에서 서술자는 물론 각 인물의 목소리들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희는 「벌레 이야기」를 “화자의 서술 의도를 중심으로 ‘증언되는 이야기’와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인물 화자의 역할은 사건을 중개하는 것이나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⁴⁾ 또한 나소정은 “소설에서 사건의 전모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남편의 해석적 시각과 논평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⁵⁾ 오은엽도 「벌레 이야기」의 남편이자 화자 ‘나’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나’가 “메타서술적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아내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교적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에 대한 확신의 결여를 자주 표현하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관찰자인 남편은 믿을만하지 못한 서술자”이지만 그것을 통해 독자는 ‘윤리적 시선’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⁶⁾ 이들의 논의는 「벌레 이야기」의 ‘화자’에 주목함으로써 이 작품의 중층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살펴보았지만 화자의 태도가 지니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나’의 이야기 행위를 ‘애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나’가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아들 알암이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다. 알암이와 아내의 일들을 기억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나’의 애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그 상실에 대한 심리적 태도,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심리적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렇다.⁷⁾

본론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애도의 측면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처음은 ‘희생의 증언’에 관한 것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나’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일 커다란 목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나’가 애도 작업의 일환으로 “아내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주목했다. ‘나’가 이른바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⁸⁾을 하고 있는 셈으로 본 것이다. 세 번째는 ‘나’의 후회와 ‘죄책감’에 관해서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술회하며 한편으로는 변명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역시 애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청준은 자신의 소설의 중층 구조에 대해 ‘반성의 정신’을 기입한 것이라고 했는데⁹⁾ 「벌레이야기」에서 반성의 정신은 ‘나’가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과 맞닿아 있

4) 김주희,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가 ‘증언’하는 용서의 도리」, 『한국문예비평연구』 14집, 2004, 129면.

5) 나소정, 위의 글, 258면. 나소정은 남편의 시각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영화 『밀양』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그다지 남편의 시각의 성격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지 못했다.

6) 오은엽, 「이청준 「벌레이야기」에 나타난 분노의 정념과 서사적 상상력」, 『국제어문』 제78집, 2018년 9월, 274~289면.

7)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프로이트 라강학교.파워북, 2013, 49면.

8) 현대 자살학의 선구자 에드윈 슈나이더먼(Edwin Shneidman)이 창안했다. 그는 심리부검을 “사망자의 삶, 생활 형태와 환경,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행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후 조사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서종한, 『심리부검』, 시간여행, 2018, 15면. 이를 통해 사망자가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아내를 이해하는 일환이 될 수 있다.

9) “어렸을 때 내가 주위에서 배워온 삶의 태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 들거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흔히, ‘내 덕이 모자라서다’, ‘하늘이 무서워 대명천지에 낫을 들고 사립을 나설 수가 없다’며 내 자신의 부덕을 먼저 부끄러워들 했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탓이오’ 정신의 선각자들인 셈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아픔이나 부끄러운 곳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제법 자기 삶의 본 모습을 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문학의 중요한 토양을 이루는 저 ‘반성의 정신’을 낳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작가에 따라선 그 고향에 대한 원죄의식과 같은 부끄러움이 무서운 투지로 혹은 견딜 수 없는 굴레로, 힘찬 창조성과 무력한 체념기로 제각기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있어서 그 구체적인 양상은 졸작 「시간의 문」이나 「비화밀교」, 「벌레

다.

2. 사실을 드러내는 증언

하지만 이제 사건의 시말은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두는 것이 좋으리라. 이 이야기는 애초 아이가 희생된 무참스런 사건의 전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어느 무디고 잔인스런 아버지가 그 자식의 애처로운 희생을 이런 식으로 머리에 되떨어리고 싶어 하겠는가. 그것은 내게서 아이가 또 한 번 죽어나가는 아픔에 다름 아닌 것이다.) 알람이에 뒤이은 또 다른 희생자 아내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붙잡히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다음에도 나의 아내에겐 그것으로 사건이 마감되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내의 희생에는 어떤 아픔이나 저주를 각오하고서라도 나의 증언이 있어야겠기 때문이다.¹⁰⁾(강조는 인용자)

이 대목은 여러 연구자가 주목했다. ‘나’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서술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는 아들 알람이의 유괴 사건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 대목에서 이야기의 초점을 아들의 죽음에서 아내의 죽음으로 옮긴다. 아들의 죽음을 떠 올리는 것은 “아이가 또 한번 죽어나가는 아픔”을 겪는 것이라 그만 둔다고 하면서 “어떤 아픔이나 저주를 각오하고서라도” 아내의 죽음에 대해 ‘증언’한다고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떠 올리는 것이나 아내의 죽음을 떠 올리는 것이나 아픈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왜 ‘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한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나’의 증언이 있어야 아내의 죽음은 “마감되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그것은 아내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편 인용문은 모두 5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뒤 3문장의 서술어는 모두 ‘때문이다’로 끝난다. 독해 상 어색하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이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것의 강조로서 ‘나’에게 증언이라는 과제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일단, ‘나’가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주목하자. 우리 국어사전에는 ‘희생’을 세 가지 뜻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중, 작중 아내의 ‘희생’과 부합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인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¹¹⁾이다. 여기에는 주체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버린다는 것과, 강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타자에 의해 빼앗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물론 아내의 ‘희생’은 후자 쪽이다.

알람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산 학원장 김도섭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지만 ‘나’의 시각에 따르면 아내를 죽게 만든 ‘타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타자’는 작중에서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나’는 ‘증언’으로 그 ‘타자’를 밝히고 그래야만 아내의 죽음을 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나의 증언’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비로소 사실을 말하자면”이라고 하고 김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즉, 아내의 ‘희생’의 중심에는 김 집사와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다.

-두고 보세요. 내 언제고 알람이 엄마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 테니까. 알람이 엄마

이야기] 같은 것을 쓰게 된 동기로 설명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 이청준, 엮은이 이위발, 『문학의 토양을 이룬 반성의 정신』, 『이청준 논』, 삼인행, 1991, 160면.

10) 이청준, 『벌레이야기』, 문학과 지성사, 2013, 49~50면.(이후부터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

11) 『표준국어대사전』

라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애 엄마한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내 그뻐 반드시...

그럴 만한 어떤 계기라도 기다리듯 계속해서 뚝을 들이고 가곤 하였다. 별반 악의가 갖들지 않은 소리들이어서 아내도 그저 무심히 들어 넘기곤 해오던 처지였다.

한데 과연 그녀의 예언처럼 아이의 사고가 생기고 만 것이었다.¹²⁾

김 집사는 아내보다는 5년 연상으로 한 동네 사람이다. 한 동네에서 ‘나’와 아내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김 집사는 이불 집을 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집사는 종종 ‘나’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다. 그런데 아내는 김 집사의 전도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나’가 민망해할 정도였다. 김 집사는 그러한 아내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예언처럼” 실제로 ‘나’와 아내에게 자식을 잃는 무참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찾아온 것이다. 결국 아내는 김 집사를 따라 교회에 나간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내는 김 집사의 끈질긴 전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2. 아들 알람이가 죽는다.
3. 아내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간증 이야기에 담겨 있는 보편적 서사다. ‘나’의 아내도 그 서사가 제시하는 길을 걷는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는 무심코 넘겼던 사실 하나를 버르짚는다. 김 집사가 자신의 말을 흘려들던 아내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 일이 “예언처럼” 닥쳤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집사의 ‘예언’ 때문에 알람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나’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을 기능적으로 ‘전도의 때’로 바라보는 김 집사의 태도를 나중에 인지하고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또 하나, 김 집사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다. ‘나’는 지난 일을 떠 올리는 가운데 시간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 시간 | 사건 |
|------------------|--|
| 지난 해 봄 | 알람이, 주산 학원 등록 |
| 지난 해 5월 초 | 알람이가 귀가하지 않음 |
| 지난 해 6월 | 한 달이 지나도 알람이의 소식은 없음 |
| 얼마 지나지 않아 | 김 집사가 찾아와 전도함. |
| 지난 해 7월 22일 저녁 | 두 달 스무 날째, 주산학원 근처 2층 건물 지하실 바닥에서 시체로 발견 |
| 일주일 지남 (7월 29일경) | 김 집사의 전도.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함. 김 집사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음 |
| 10월 초순 | 김 집사가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함. 아내는 따라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함. |
| 12월 중순 | 김도섭의 사형 확정. 아내 교회 나간 지 2개월. 아내는 김도섭을 용서하고 싶어 함. |
| 12월 23일 | 사형수 김도섭을 보고 아내는 절망함. |

12) 「벌레이야기」, 51~52면.

| | |
|----------|------------------------------------|
| 올해 2월 | 김도섭의 교수형 집행. |
| 올해 2월 5일 | 김도섭의 사형 소식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라디오에 나옴 |
| 올해 2월 7일 | 아내는 유서없이 자살 |

「벌레 이야기」의 작중 내용을 이루고 있는 ‘나’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나’가 지난 일을 떠올리며 유독 시간을 자세하게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시점을 ‘초순’, ‘중순’ 등으로 10일 정도 어림으로 제시할 때도 있고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할 때도 있다. 아마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그러한 차이를 두었다고 생각된다. 시간 제시의 시작은 알람이가 주산 학원을 등록한 시점부터이다. 알람이가 유괴되고 살해당한 것은 그 살인자가 원장으로 있는 주산 학원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알람이가 집에 귀가하지 않은 시점이 어림으로 제시되었고, 알람이가 시체로 발견된 날은 7월 22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알람이가 실종되었을 때와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사이에 김 집사가 전도를 위해 ‘나’의 아내를 찾아온다. 앞서 살핀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위료가 필요한 때이고 그만큼 전도가 용이할 때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10월 초순에 교회에 나가는데 알람이가 시체로 발견된 지 두 달 지난 시점이다. 그로부터 두 달 지나 김도섭의 사형이 확정되고 아내는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크리스마스 무렵, 김도섭을 만나고 김도섭의 ‘하나님 용서’ 운운 하는 말에 경악한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이듬해 김도섭의 사형이 집행된다. 아내는 2월 5일 라디오에서 김도섭의 유언을 듣고 이를 후 자살한다. 알람이가 시체로 발견된 지 7개월 만이고 아내가 용서를 결심한 지 2개월 만이다.

일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내는 두 차례 신앙을 가졌다가 버리고, 용서를 결심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결심을 파기한다. ‘김 집사의 기독교’는 타인의 고통에 차분히 스며 들어가지 못하고 외려 그것을 전도 계기만 삼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 ‘나’는 그것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애도 작업은 용서와 관련이 있다. 보통 용서는 ‘길’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용서에 대해 천착한 연구자들은 보통 “용서의 길은 멀고 고통스럽다.”¹³⁾나 “용서의 ‘길’은 보통 타인에게서 부당 행위를 당한 누군가가 끔찍한 분노를 겪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¹⁴⁾ 등과 같이 말한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이면서도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벌레 이야기」에서 아내에게 그 시간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중에서 ‘김 집사의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통은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용서가 도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테리다는 최근 지정학적 무대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용서’와 관련된 언어를 “이미 법정치·경제 또는 외교의 보편적 관용어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¹⁵⁾ 그만큼 기독교의 ‘용서’ 개념이 각 사회, 각 민족 단위로 퍼졌으며 알게 모르게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용서가 정치·사회적인 화해나 심리적 치료의 목적으로 기능한다면 그 용서는 순수하지 않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을 용서”¹⁶⁾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용서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 윤리 차원에서 조명하는 테리다의 용서의 원리는 그의 애도에 대한 언명을 연상케 한다. 그는, 프로이트의 의견에 반해 애도의 성공은 애도의 실패이고 애도가 실패해야 애도가 성공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상실의 대상에 투여된 리비도를 거두어 집착을 끝내는 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애도의 성공이라면¹⁷⁾ 그것은 상실한 대상에 대해 윤리적이기 못하다는 것이다. 용서와 애도에 대해 테리

13) 손운산, 『용서와 치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14면.

14)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강동혁 옮김,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 이파리, 2018, 39면.

15) 자크테리다, 신정아. 최용호 옮김, 『신앙과 지식-세기와 용서』, 아카넷, 2001, 217면.

16) 위의 책, 223면.

다가 주장하는 절대적이며 순수한 논리는 고통이 인간의 마음에 남기는 자국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역설(力說)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치유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의 '용서'의 보편화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용서를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자못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3. 원인을 밝히는 증언

아내는 남편인 '나'에게도, 신앙의 도움을 받았던 김 집사에게도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슬픔과 절대 고통의 고통 가운데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공유한 남편에게 고통의 전말을 말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것을 따져 보고 알아내는 것은 '나'의 애도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작업을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라고 부른다. 심리 부검은 자살 유가족에게 의미가 있다. 심리 부검이 밝혀주는 진실이 유가족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문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아내는 알았이를 죽인 범인에 대해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내가 하고자 하는 복수는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권력의 규제다. 사회는 통제 불능의 복수 사태를 막기 위해 사법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아내는 알았이가 공포와 외로움 가운데 죽어간 것처럼 범인도 그렇게 죽어가길 바라지만 그의 바람은 법 앞에 가로막혀 있다. 두 번째 규제는 김 집사가 전한 기독교다. 기독교는 "사랑과 공화와 관대함과 용서가 승리하는 세상"을 제시한다.¹⁹⁾ 사적 복수의 단념도 어려운데 기독교는 거기다 용서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덧붙여 심리학 역시, 피해자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 외 복수를 단념하라는 명제는 우리 사회 안에 편만해 있다.

마사 누스바움은 "지적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왜 가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면 자신의 고통이 누그러지거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에 따르면 현실에서 가해자를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경우는 없기에 그러한 생각을 '마법적 사고'가 개입한 것으로 본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이성적이며 너무나 점잖다. 피해자가 원상복귀를 위해 복수를 꿈꾸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응징 욕구에 기반을 두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집사는 아내를 찾아와 그 복수심을 내려 놓으라고 말한다. '나'도 동의하는 것처럼 그 복수심을 갖고 있다면 아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김 집사와 더불어 아내에게 신앙을 권유한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는 알았이 엄마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엾은 알았이의 영혼을 위한 일인 거예요. 알았이의 영혼과 애 엄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너무 깊은 원망을 지니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61)

17)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4, 261면.

18) "심리 부검은 근본적으로 사망자의 지난 삶을 반추함으로써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이다." 서종한, 『심리부검』, 시간여행, 2018, 23~23면.

19) 스티븐 파인먼 지음, 이재경 옮김, 『복수의 심리학』, 반니, 2018, 8면.

20)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강동혁 옮김,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 이파리, 2018, 67면.

김 집사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아내가 범인에 대해 복수심을 계속 갖고 있다면 아내는 계속 자기 자신을 굶아 먹는 파괴적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용서는 자기 치유의 한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용서의 궤도에 올려놓는다.²¹⁾

스티븐스 체리는 피해자에게 무력감을 안기는 ‘용서 부추기기’나 반대로 피해자를 자기 미화에 빠뜨리는 ‘용서자 신드롬’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만 용서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통을 멈추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나타나기 쉬운 ‘용서 충동’에 대해서도 숙고를 요구한다.²²⁾ 이러한 ‘용서’의 과잉 행동들은 예의 기독교의 용서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며 ‘나’의 아내도 김 집사의 인도로 이 과정과 행위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결국 ‘나’의 아내는 이 궤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아니 포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한 명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다.

가. -모르세요. 집사님처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몰라요. 나는 집사님처럼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알 수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²³⁾

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공평한 사랑일까요.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정녕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의 저주를 택하겠어요. 내게 어떤 저주가 내리더라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예요.²⁴⁾

다. 아내는 마침내 마지막 절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이제 그 가엾은 아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내의 무참스런 파탄 앞에 끝끝내 주님의 엄숙한 계율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차라리 주님의 대리자처럼 아내를 강압했다.²⁵⁾

인용문 가)와 나)는 모두 알암이의 살해자 김도섭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나’의 아내가 김 집사에게 하는 절규이다. 인용문 가)에서 아내는 김 집사를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다고 했지,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아내의 절규는 기독교 신앙 체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내는 용서와 관한 아브라함의 언어 가운데 인간의 자리가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인간의 자리는 인용문 나)의 표현으로는 ‘복수하는 인간’의 자리이다. 아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하는 자리에 서 보았고 그 자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았다.

인용문 다)는 절규하는 아내와 그것에 대응하는 김 집사의 태도에 대한 ‘나’의 평가다. ‘나’가 보기에 아내는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이며 김 집사는 그러한 아내를 돌보기는커녕 “강압했다”. 그리고 뒤에 ‘나’는 아내의 “지옥 같은 절망의 정체”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버린 것”과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있다고 진단하고 아내의 “절망감은 너무도 인간적인 것”²⁶⁾이었다고 판단한다. 당면한 용서의 도정에서 ‘나’의 아내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21) 이와 관련하여서 한국 교회에서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손양원 장로의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며 기독교적 용서의 전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병학, 『손양원』, 규장, 1992. 참조.

22) 스티븐스 체리 지음, 송연수 옮김, 『용서라는 고통』, 황소자리, 2013, 223면.

23) 『벌레 이야기』, 74면.

24) 『벌레 이야기』, 76면.

25) 『벌레 이야기』, 76면.

26) 『벌레 이야기』, 77면.

을 표명한 것이다.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여받은 용서라는 과제를 고통스럽게 수행하는 중에 ‘나’의 아내와 ‘나’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김 집사는 신자라면 인간의 길은 하느님의 길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아내의 세계, 그리고 김 집사의 세계는 판연히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상기되는 것은 데리다가 순도 높게 정련해둔 ‘용서’에 대한 언명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을 용서”²⁷⁾하며, “‘목적이 있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며, 그것은 단지 정치적 전략이거나 심리치료적인 경제일 뿐”²⁸⁾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애초 아내의 행위는 ‘용서’가 아니었다. ‘나’와 김 집사는 ‘용서’를 해야 아내가 분노심에서 벗어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아내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녀에게도 ‘용서’의 목적이 없었을 리 없다.

다리 한쪽이 불편한 때문이었을까. 제 어미 마흔 가까이에 얻어 낳은 녀석이 어릴 적부터 성미가 남달리 유순했다. 유순한 정도를 지나 내숭스러워 보일 만큼 나약하고 조용했다. 어려서부터 통 집밖엘 나가 노는 일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과도 어울리려 하질 않았다. 집 안에서만 혼자 하얗게 자라갔다. 혼자서 무슨 특별한 놀이를 탐하는 일도 없었다. 무슨 일에도 취미를 못 붙이고 애어른처럼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적막스런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녀석의 몸짓이나 말투까지도 그렇게 조용조용 조심스럽기만 하였다.

초등학생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그 사건 자체의 비극성이 크기 때문에 앞에 인용한 알람이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대목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에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나’가 미리 언급한 알람이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알람이는 ‘나’와 아내가 오래 기다렸던 아이이다. 아내 나이, 마흔이 되어서야 얻은 아이인 것이다. 그런데 다리 한쪽이 불편했다. 그 때문인지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지냈고 성격은 유순했다. ‘나’는 그런 알람이를 “집 안에서만 혼자 하얗게 자라갔다”고 표현한다. 그렇게 자랐던 알람이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주산이었다. 그런데 주산 학원 원장 김도섭이 알람이를 유괴하여 죽이고 그 주검을 차디찬 건물 바닥에 유기하였다. 또한 알람이를 찾는 과정에서도 알람이가 친하게 어울린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장애로 슬프게 자란 아이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주산이 도리어 화가 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나’와 아내의 아픔을 더 아프게 했을 것이다. 알람이라는 타자가 생에서 느꼈을 슬픔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알람이의 희생에 대한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용서는 아내의 몫이었다. 그런데 김도섭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가 믿게 된 하느님이 그를 용서한 것이다. 아내는 아내가 믿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김도섭을 용서하려 간 것이니 하느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용서의 주도권을 빼앗긴 아내의 분노, 이에 대해서는 ‘나’가 주목하였으며 그간의 연구도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용서의 주체는 아내의 몫이란 말은 바른가. 그렇지 않다. 아내는 물론 희생자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알람이다. 그런데 알람이는 이 세상에 없기에 복수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아내의 ‘희생’은 자식을 잃었고 그래서 상실의 슬픔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아내가 김도섭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희생’ 몫에 해당하는 것에만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는 또 다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 여느 아이와는 달리 ‘하얗게 자란 아이’, 슬프게 삶을 보냈던 알람이가 복수 혹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7) 자크데리다, 신정아, 최용호 옮김, 『신앙과 지식』, 아카넷, 2016, 223면.

28) 위의 책, 248면.

아마도 아내는 자신의 슬픔 몫 외에 알람이의 대리자로서 임무도 떠안았을 것이다. 아내가 절망적이었다는 것은 김도섭이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진술이고 몸과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진 것은 김도섭이 평안하다는 것 때문이다. 얼마 후 사형당할 김도섭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했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 아내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복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김도섭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나’가 추측건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용서의 문제에 부딪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아내가 겪어야 할 상실의 아픔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초월적 심급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접한 하나님은 즉, 김 집사의 하나님은 아내를 위무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용서할 것을 강압하는 하나님이였다. 더군다나 가해자 도섭은 하나님의 용서로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도섭이 사형된 것으로 용서 혹은 용서를 가장한 복수,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상실의 고통과 외롭게 자라났던 아들, 알람이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는 경지, 그 어두 컴컴한 경지에서 의지할 곳 없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기독교 신앙이 모자라 기독교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반항했다기보다는 외려 김 집사의 신앙이 조형한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 머물러 외로웠다고 할 수 있다.

4. 잘못을 고백하는 증언

‘나’가 ‘나’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점은 아내가 죽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때이다. 또한 알람이가 죽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즉, 화자 ‘나’는 2년 사이, 외아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은 셈이다. 이 글에서 ‘나’의 이야기는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취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여기에는 ‘나’의 진한 죄책감이 토로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나’는 아내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창동의 영화 『밀양』은 『벌레 이야기』의 좋은 해석본으로 읽힌다. 『밀양』은 『벌레 이야기』와 온전히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결말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벌레 이야기』에서 ‘나’의 아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지만 『밀양』에서 신애는 죽지 않는다. 『밀양』에서 신애가 비록 자살 시도는 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시종 신애와 함께 하고 마지막에는 거울을 들어주는 종찬의 존재라는 이유도 있다. 종찬은 신애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함께 하려고 신애의 뒤를 쫓는다. 교회도 따라 다닌다. 이러한 모습은 『벌레 이야기』의 ‘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내에겐 아무래도 그 김 집사와 그녀가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크게 필요해 보였다. 그래 나 역시 아내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같이 교회를 나가자는 김 집사의 권유에 나는 우선 먼저 아내부터 좋은 길을 인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김 집사를 거들었다. (62)

‘나’는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내가 치유되어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김 집사가 권하는 기독교 신앙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김 집사와 함께 아내에게 신앙을 권유하는데 정작 자신은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밀양』에서 종찬이 오로지 신애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일념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나간 이후, 아내의 신앙이 ‘진짜 신앙심’인지 아닌지 비평한다. “아이의 영생과 내세 복락만을 외어”대는 것은 ‘진짜 신앙심’이 아니라는 것인데 간신히

신앙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내에게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뜬금없으며 외람된 것이다.²⁹⁾

그만큼 「벌레 이야기」에서 ‘나’는 아내의 실존적 고통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나’는 범인을 추정할 때, 즉 “범인은 어느 만큼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우리들(아내와 나 그리고 가까운 이웃 친척들까지도)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등에서 아내와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범인이 밝혀지고 아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는 ‘우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아내가 김 집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기대는 과연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할 수 없었다.” 등에서 ‘나’는 김 집사와 자신을 ‘우리’로 표현한다. 아내가 고통에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나’가 아내와 함께 고통을 겪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³¹⁾

나로선 그저 기분으로 막연히 반대를 하고 나설 수가 없었다. 아내를 거기까지 인도해온 데는 누구보다 김 집사의 도움이 컸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 그것이 어차피 필요한 고비라면 이번 일도 모든 걸 그 집사에게 맡겨두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쪼록 집사님만 믿겠습니다.

여전히 한 가닥 불안스런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나는 그쯤 일을 결정 짓고 말았다. 아내의 일에선 어쨌거나 늘 김 집사의 판단이 옳았던 편인 데다 이제 와선 그녀에 대한 아내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⁶⁹⁾

김 집사의 전도와 나의 거들은 ‘우리’라는 주체의 행위로 묶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사형을 앞둔 김도섭을 만나는 순간 그 성공적 유대는 균열이 생긴다. 김 집사는 걱정은 하면서도 아내와 함께 김도섭을 만나게 하자고 ‘나’를 설득한다. 그리고 ‘나’는 꺼림직했지만 김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결심한다. 지금까지 김 집사의 판단이 옳았고 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와 김 집사의 ‘우리’ 공동체는 해체된다. ‘나’는 김 집사와 함께 아내를 교회에 보내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였지만 교도소에 보내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서술로서 분명히 확인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김 집사를 신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명이자 뼈 아픈 후회와 죄책감의 토로이다.

29) 아내의 신앙심에 대한 비평은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현길언은 “신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앙한 것”이라고 했으며 진경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선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 부른 파국으로 보”았고 이대규는 아내가 교회를 나간 것은 “본심에서 우려나온 신앙심”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출처는 다음과 같은 차례다. 현길언, 「구원의 시련을 위한 사랑과 용서」, 『이청준 론』, 삼인행, 1991, 301면. ; 진경년, 「칸느 영화제와 한국 영화 『밀양』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년 6월, 33면. ; 최재선, 「현대소설에 나타난 신정론 연구」, 『문학과 종교』 13권 2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8, 10면. ; 이대규, 앞의 글, 297면.

30)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남편이 ‘냉철한 거리’를 두고 아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독자가 공감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한다. 송태현, 「소설 「벌레 이야기」에서 영화 『밀양』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5, 세계문학비교학회, 2008, 332면. 최수웅은 ‘나’가 서술 주체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능적인 목적에서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수웅, 「소설과 영화의 창작방법론 비교분석-「벌레 이야기」와 『밀양』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15면.

31) 김애란의 「입동」 역시 작중 화자가 어린 아들을 잃은 사내이다. 그 역시 아내를 관찰하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아내와 자신을 아울러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김애란, 「입동」,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2019. 참조.

이런 생각과 더불어 ‘나’는 후회와 죄책감의 정서를 문면에 담고 있다. 「벌레 이야기」에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 ‘하지만’과 ‘그러나’가 모두 43번 나온다. 그 중 ‘하지만’은 27번, ‘그러나’는 16번 등장한다. 역접의 접속 부사 그중에 ‘하지만’이 잦은 빈도로 나오지만 객관적으로 많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지막 5장,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장에서 ‘하지만’은 4번, ‘그러나’는 2번 등장한다. 4페이지 분량임을 고려할 때 또한 5장의 초반 부분은 거의 문단처음을 ‘하지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빈도 수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지만’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 아내의 심장은 주님의 섭리와 자기 ‘인간’ 사이에서 두 갈래로 무참히 찢겨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김 집사 앞에 거기까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78면)

나) 아내가 지금까지 내게 입을 다물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 무서운 고통과 절망이 입조차 열 수가 없게 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겨우 그 아내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다만 저열하고 무명한 인간의 이름으로 그녀의 아픔만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다.(78~79면)

다)(김 집사는) 그리고 아내의 신앙심의 회복과 주님의 종으로서의 용기를 부추겼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게는 다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79면)

라) 그날 이후로 다시 입을 까맣게 다물어버린 아내는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아아, 아내의 절망과 고통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차마 짐작이나 했을 것인가.(79~80면; 강조는 인용자)

가)에서 ‘하지만’은 아내와 김 집사의 생각이 서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아내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신의 길과 인간의 길이 엄연히 다르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에서 ‘하지만’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나’가 아내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으로서 ‘김 집사의 기독교’에서는 일견 무시되는 고통인 것이다. 다)에서 ‘하지만’은 ‘나’와 김 집사를 구별한다. ‘나’는 김 집사와는 달리 아내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의 ‘하지만’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통의 뿌리를 미처 다 알지 못했다는 처절한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나’가 쓰고 있는 ‘하지만’은 역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 부사보다는 후회와 비탄의 정서를 머금고 있는 감탄사에 가깝다. 그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다.

이청준의 소설에서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가 자주 등장하고 특히 「벌레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전제하면 그것은 문장을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데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正)의 진술 다음에 반(反)의 진술을 하고 나아가 합(合)의 진술을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5장의 ‘하지만’은 ‘나’의 의미상으로는 죄책감의 토로, 형식상으로는 감정의 격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아내의 죽음을 해명하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후회와 죄책감, 비탄의 정서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³²⁾

32) ‘나’는 김 집사의 행동에 대해 “고집했다”, “강압했다”, “설교했다” 등 단언(斷言) 성격의 서술어를 사용한다. 이대규, 「이청준 소설 「벌레 이야기」의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 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년 12월, 304면.

5. 나가며

지금까지 「별레 이야기」를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몇몇 연구자들이 화자 ‘나’와 ‘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메타 서술이라는 지적 그 이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지는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나’가 아들, 알람이와 아내를 잃은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심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증언’하는 것이며 그 무참한 상황을 정리하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애도 작업이라고 보았다.

‘나’는 「별레 이야기」에서 오로지 아내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애도한다. ‘나’ 역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이지만 살해자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다. 오로지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나’의 서술 태도가 “냉철하게” 보이는 이유다. 지난 아내의 행적을 더듬어 ‘나’가 도달한 것은 아내의 죽음에는 기독교 신앙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김 집사의 기독교’이며 그것과 관련된 ‘용서의 담론들’이다.

‘나’는 아내의 기독교 신앙이 아내를 구원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혼돈에 빠졌다. 아내는 용서의 도정에서 아이 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용서는 인간의 길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였다. 그러나 ‘김 집사의 기독교’는 또한 살해자 김도섭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 집사와 김도섭은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식 잃은 상실의 고통에 더하여 자신의 슬픔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알람이의 고통을 떠안은 아내는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세계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테리다는 기독교의 용서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정후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용서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내의 절규와 ‘나’의 인식에서 드러난 것처럼 용서는 인간의 길이 아닌 것이다. 테리다의 용서에 대한 정의는 ‘기독교’의 체계 안에서 용서를 강압당했던 아내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용서는 불가능하니 아예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테리다는 덧붙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몸짓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윤리적인 몸짓이라고 했다”.³³⁾ 정리하자면 진정한 용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과 자신의 거리를 재 왜 자신은 신처럼 살 수 없는가를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집사의 기독교’는 그러한 사유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삶을 지멸있게 추적하여 아내가 끝내 자신에게 밝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재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내의 죽음의 배후에는 ‘김 집사의 기독교’가 있다고 보았다. ‘김 집사의 기독교’는 전도를 위해 타자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고 애도의 과정을 전도의 시간표에 편입시켰다. ‘나’는 그것을 똑바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느 정도 변명을 덧붙였지만 아내와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했고 그것을 고백으로 표현했다. ‘나’는 윤리적으로 애도를 하고자 하였다.

33) 왕은철, 「자크 테리다의 따뜻한 사유와 이론」, 『영미문학교육』 제16집 2호, 2012년, 266면.